

소년원학교 수학과 지도방안

- 발문학습 중심으로 -

김재덕* 김도현**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비행은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고찰은 19세기 이후 아노미이론, 접촉차이이론, 사회해체론, 하위문화론, 낙인이론, 현상학적 접근, 신갈등이론, 비판범죄론 등 청소년 비행이론을 낳았고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07년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자는 115,990명으로 전체범죄의 4.6%를 차지하고 소년범죄자 중 26,950명(23.2%)이 소년부송치된다. 그 중 학생범죄자는 69,522명이며 이 중 12,939명(18.6%)이 소년부송치된다.(대검찰청, 2007) 그리고 법원송치 1,538명, 검사송치 26,682명, 경찰서장송치 9,636

* 고봉고등학교 교사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명,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54명으로 총37,910명이 소년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구)5호처분 27명, (구)6호처분 957명, (구)7호처분 803명이 소년원 송치 된다. (법원행정처, 2007) 이는 소년원학교에 입원하는 비행청소년 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인 경우에도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중입검정고시, 고입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년원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노력한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학업을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년원학교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교로 돌아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지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년원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중 일반계 교과와 검정고시 수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소년원학교의 수업교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특수지능적성검사 및 검정고시결과, 성취도평가를 통하여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분석한다. 셋째, 수학교육에 대한 태도 검사 설문을 분석한다. 넷째,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소년원학교 수학과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지능수준이 평균보다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능력에 특징이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접근법에 있어 일정기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횡단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 특성의 안정적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성장하며 보여주는 변화를 알 수 없다. 둘째, 연구 설계에 있어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상관연구로서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없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소년원 교육과정은 소년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운영된다.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소년원 교육과정 운영

학년은 2009. 3. 1.~2010. 2. 28., 학기는 1학기를 2009. 3. 1.~2009. 8. 31., 2학기를 2009. 9. 1.~2010. 2. 28.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연간 수업일수는 각 학년 205일 이상 유지하며 연간 최소 수업시수는 중학교 1,122시간, 고등학교 1,190시간으로 하고 특성화교육과정의 경우 특성화교과시간을 60%(±10%) 비율로 편성한다. 주당 시간계획은 33~35시간을 원칙으로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 시간을 우선 편성한다. 겨울 및 여름방학은 1월과 8월중 기관 실정에 맞게 각 15일 범위 내에서 체험활동 중심의 특별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 단기 인성교육 전담 소년원의 경우 원활한 집단 상담을 위해 방학 기간 축소 또는 방학기간 중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며 보통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종교 활동 프로그램, 외부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수업은 오전 3교시(09:20~11:55), 오후 4교시(13:40~17:10)를 원칙으로 편성하고 1시간 수업은 수업 45분, 휴식 10분으로 운용한다.

2) 교육평가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교육 등 모든 평가는 자체 「성적관리규정」에 의하며 「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세부기준(배점), 반영 비율과 성적처리 방법,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수 부여, 실기 평가물 관리 및 결과 활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과의 평가는 지식위주의 선다형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 각종 대회참가 및 자격시험, 표현 및 태도, 과제물 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수행 및 지필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자체 평가기준 및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수행 및 지필평가의 결과는 교과목별 성적일람표로 작성,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로 활용하고 있다.

교과교육에서 지도방향으로 첫째, 정보처리능력, 창의적 직업능력배양 등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습득, 둘째, 소년원학생의 비행성 교정을 위해 특성화 교과목

으로 인성교육 도입. 셋째,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평가체제를 도입, 질적 수준 제고. 넷째,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TEAMS"라 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사이버 원격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으로 하고 있다. 교과별 편제는 특성화교과인 경우 컴퓨터, 인성교육으로 나누며 보통교과인 경우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9과목)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제외한 수업시간은 최대한 보통교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소년원별 교육과정 및 대상자 분류기준

구분 기관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분 류 기 준		
			이송 수용	대 상 자	인 수 소년원
서 울 소년원	일반계중 고등학교,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0호	이송	■ 제9호 처분자 중 인성교육 대상자	춘천·대구소년원
				■ 제9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대덕소년원
				■ 제10호 처분자 중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	부산·광주소녀원
		자체 수용	■ 특성화 중·고등학교 대상자 ■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중 영상미디어, 제과제빵, e-sport 교육과정 대상자		
부 산 소년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0호	이송	■ 제10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소녀원
				■ 제9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대덕소년원
				■ 제9호 처분자 중 인성교육 대상자	대구·춘천소년원
		자체 수용	■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		
대 구 소년원	인성교육	제9호	이송	■ 제10호 처분자 중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	부산·광주소녀원
				■ 제10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소녀원
				■ 제9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대덕소년원
		자체 수용	■ 인성교육 대상자		
광 주 소년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0호	이송	■ 제10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소녀원
				■ 제9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대덕소년원
				■ 제9호 처분자 중 인성교육 대상자	대구·춘천소년원
		자체 수용	■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		
전 주 소년원	특성화 중학교	제9호 제10호	이송	■ 제10호 처분자 중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	부산·광주소녀원
				■ 중학교 교육 대상자	
			자체 수용		

구분 기관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분 류 기 준		
			이송 수용	대 상 자	인 수 소년원
대 덕 소년원	중고등 학교, 의료재활 처우	제9호 제10호	이송	■ 제9호 처분자 중 인성교육 대상자	대구춘천소년원
				■ 제10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소년원
				■ 제10호 처분자 중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	부산광주소년원
		자체 수용	■ 제9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 제9·제10호 처분자 중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대상자 ■ 약물남용 및 중독자, 정신장애자, 발달장애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신체장애 및 장기적 가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등 집중치료 및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제9호·제10호 처분자		
안 양 소년원	특성화 중학교,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9호 제10호	자체 수용	■ 전국 소년원 여자 제9·제10호 처분자 중 의료처우 대상자를 제외한 전원	
춘 천 소년원	인성교육	제9호	이송	■ 제10호 처분자 중 직업능력개발교육 대상자	부산광주소년원
				■ 제9호 처분자 중 중학교 교육 대상자	전주대덕소년원
자체 수용	■ 인성교육 대상자				
제 주 소년원	인성교육	제9호 제10호	자체 수용	■ 제주지역의 제9호·제10호 처분자	

법무부 소년과, 소년보호교육기관 교육계획(2009)

2. 특수지능적성검사

1) 특수지능적성검사의 표준화 과정

특수지능적성검사는 검사의 하위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하여 문항의 반응양식을 4지선다형과 진위형으로 설정하고, 심리검사 및 평가전문가의 문항 검토를 거친 후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선정하여 총 355문항(능력영역 245문항, 태도영역 110문항)으로 제작되었다.

특수지능적성검사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한 후 대표

성 있는 표집을 위하여 다단계유층표집방법과 군집표집방법을 병용하여 실시하였다.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표집 하였고, 비행청소년들은 전국18개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을 표집 하였다. 그 결과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계수 (.769~.971)이고,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능력영역이 .524~.787이었고 태도영역이 .780~.838로 논리적 사고와 지각속도만 .547, .524로 다른 하위검사에 비하여 낮게 산출되었을 뿐 모두 .60이상이 나타나 비교적 안정된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타당도에서 구인타당도의 요인간 상관계수가 .053~.691로 나타났으며 어휘와 언어사용은 언어영역에, 수문장과 수추리는 수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14개 하위검사의 상호 독립성은 비교적 잘 지켜진다. 요인분석 결과 Eigenvalue값이 전체적으로 1로 나타나 14개의 하위검사는 각기 고유한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준거타당도 측정을 위하여 한국가이던스의 종합능력검사와 한국적성연구서의 일반적성검사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는데 몇몇 하위검사를 제외하고는 .30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특수지능적성검사의 구성

특수지능적성검사는 능력영역과 태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심리측정적 접근에 기초한 능력영역은 8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다중지능이론을 근거로 제작된 태도영역은 6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검사와 문항 수는 다음 <표1>와 같다.

<표1> 하위검사별 문항 수

구 분	하위검사	문항 수
능력영역 (186문항)	어휘	20
	언어사용	20
	수문장	15
	수추리	18
	나무도막세기	20
	도형유추	25
	논리적 사고	20
	지각속도	48
태도영역(105문항)	음악적성	15
	운동적성	19
	미술적성	19
	컴퓨터적성	15
	기술적성	17
	대인관계적성	16

각 소검사의 구체적으로 소용되는 시간은 <표2>와 같다.

<표2> 검사소요시간

하위검사		지시	검사	총소요시간
검사안내		5분	-	5분
능력영역	1. 어휘	2분	4분	6분
	2. 언어사용	2분	3분	5분
	3. 수문장	2분	8분	10분
	4. 수추리	2분30초	10분	12분30초
	5. 나무도막세기	2분	6분	8분
	6. 도형유추	2분30초	7분	9분30초
	7. 논리적 사고	3분30초	6분	9분30초
	8. 지각속도	2분	1분30초	3분30초
태도영역	9. 진로탐색	2분	약20분	약22분
총계		25분30초	65분30초	약91분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입원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법에 있어 일정기간에 대한 통계자료 및 설문을 바탕으로 한 횡단적 접근을

하고 있다. 둘째, 연구 설계에 있어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상관연구이다.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통계치를 가지고 수학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 설문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3. 자료처리

자료들을 가설을 세워 MINITAB 14.0을 가지고 통계처리 하였다. 유의도 95%의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소년범죄 현황

5년간의 소년범죄 발생상황을 보면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발생상황은 <표3>과 같다.

<표3>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범죄(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2003	2,441,267	104,158	4.3	68,549	65.8
2004	2,606,718	92,976	3.6	63,678	68.5
2005	2,384,613	86,014	3.6	57,980	67.1
2006	2,401,537	92,643	3.9	58,463	63.1
2007	2,548,010	116,135	4.6	69,472	59.8

자료 : 대검찰청(2007)

소년범죄의 발생건수가 4.3%에서 3.6%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도 3.9%, 2007년 4.6%를 증가하였다. 그 중 학생범죄의 비중이 60%이상으로 학생들에 의한 비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소년원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표4>와 같다.

<표4> 청소년 범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년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연령 미상
2003	104,158	1,423 (1.4)	8,456 (8.1)	13,396 (12.9)	15,722 (15.2)	16,369 (15.7)	17,846 (17.1)	22,873 (22.0)	8,073 (7.8)
2004	92,976	676 (0.7)	6,236 (6.7)	9,663 (10.4)	10,588 (11.4)	12,200 (13.1)	15,059 (16.2)	18,348 (19.7)	20,206 (21.7)
2005	86,014	523 (0.6)	7,121 (8.3)	11,640 (13.5)	12,030 (14.0)	10,755 (12.5)	11,561 (13.4)	13,848 (16.1)	18,536 (21.5)
2006	92,643	610 (0.7)	9,245 (10.0)	15,582 (16.8)	17,138 (18.5)	14,428 (15.6)	14,302 (15.4)	16,541 (17.9)	4,797 (5.2)
2007	116,135	499 (0.4)	5,809 (5.0)	19,943 (17.2)	24,557 (21.1)	20,662 (17.8)	18,489 (15.9)	18,144 (15.6)	8,032 (7.0)

자료 : 대검찰청(2007)

모든 연도에서 16세와 20세 사이의 학생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들어오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이 비행을 저질러 그 의무를 다하고 사회 또는 학교로 돌아갔을 때 적응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소년원학교 통계자료 분석

<표5> 연령,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최종학력

연령	성별	최종학력												
		초 유예	초재	중재	중졸	고퇴	고재	고졸	대학 이상	중 유예	초졸	미 응답	불 취학	총 합계
10세	남	0	1	0	0	0	0	0	0	0	0	0	0	1
10세	소계	0	1	0	0	0	0	0	0	0	0	0	0	1
11세	남	0	1	0	0	0	0	0	0	0	0	0	0	1
11세	소계	0	1	0	0	0	0	0	0	0	0	0	0	1

연령	성별	최종학력												
		초유예	초제	중제	중졸	고퇴	고제	고졸	대학이상	중유예	초졸	미응답	불취학	총합계
12세	남	2	6	9	0	0	0	0	0	4	0	0	0	21
	여	2	2	3	0	0	0	0	0	0	0	0	0	7
12세 소계		4	8	12	0	0	0	0	0	4	0	0	0	28
13세	남	1	1	86	1	0	0	0	0	40	7	0	1	137
	여	0	0	27	0	0	0	0	0	20	1	0	0	48
13세 소계		1	1	113	1	0	0	0	0	60	8	0	1	185
14세	남	1	0	182	6	0	0	1	0	120	10	0	0	320
	여	0	0	43	2	0	0	0	0	56	4	0	0	105
14세 소계		1	0	225	8	0	0	1	0	176	14	0	0	425
15세	남	1	0	174	43	74	76	0	1	197	16	0	1	583
	여	0	0	22	10	10	14	1	0	88	10	0	0	155
15세 소계		1	0	196	53	84	90	1	1	285	26	0	1	738
16세	남	1	0	45	78	334	204	7	0	135	19	2	0	825
	여	0	0	12	24	54	27	0	0	51	10	0	0	178
	미응답	0	0	0	1	1	0	0	0	0	0	0	0	2
16세 소계		1	0	57	103	389	231	7	0	186	29	2	0	1005
17세	남	0	0	8	55	289	183	9	1	51	8	3	1	608
	여	0	0	3	4	54	22	2	1	21	1	0	0	108
17세 소계		0	0	11	59	343	205	11	2	72	9	3	1	716
18세	남	0	1	0	26	137	51	28	4	18	6	0	1	272
	여	0	0	0	9	29	3	4	1	9	1	0	0	56
18세 소계		0	1	0	35	166	54	32	5	27	7	0	1	328
19세	남	0	0	2	3	29	0	6	3	7	1	0	0	51
	여	0	0	0	1	12	0	3	0	2	0	0	0	18
19세 소계		0	0	2	4	41	0	9	3	9	1	0	0	69
미응답	남	0	0	0	0	1	0	0	0	0	0	1	0	2
	여	0	0	0	0	1	0	1	0	0	0	0	0	2
	미응답	0	0	0	0	0	0	0	0	0	28	0	0	28
미응답소계		0	0	0	0	2	0	1	0	0	0	29	0	32
총합계		8	12	616	263	1025	580	62	11	819	94	34	4	3528

<표6>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연령

성별	연령											총합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미응답	
남	1	1	21	137	320	583	825	608	272	51	2	2821
여	0	0	7	48	105	155	178	108	56	18	2	677
미응답	0	0	0	0	0	0	2	0	0	0	28	30
총합계	1	1	28	185	425	738	1005	716	328	69	32	3528

Chi-Sq = 27.954, DF = 7, P-Value = 0.000

<표6>은 자유도 7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성별에 따른 비행 연령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남자의 경우 16세와 17세에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 15세와 16세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7>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최종학력

성별	최종학력												총합계
	초유예	초재	초졸	중학교 재학	중유예	중졸	고재	고퇴	고졸	대학 이상	미응답	불취학	
남	6	10	67	506	572	212	514	864	51	9	6	4	2821
여	2	2	27	110	247	50	66	160	11	2	0	0	677
미응답	0	0	0	0	0	1	0	1	0	0	28	0	30
총합계	8	12	94	616	819	263	580	1025	62	11	34	4	3528

Chi-Sq = 100.303, DF = 9, P-Value = 0.000

<표7>은 자유도 9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성별에 따른 비행 연령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 중학교 재학, 중학교 유예, 고등학교 재학의 학생비중이 높게 나왔다. 이는 학업기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통하여 소년보호기관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년보호기관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넓혀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을 때 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보여준다.

<표8>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비행명

성별	비행명																		
	강도	기타	기타 재산 비행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배임	상해	성비행	약취/유인	유해화	절도	주거침입	특수절도	협박/공갈	미응답	기타 대인 피해	폭행	살인	보호관찰법 위반	총합계
남	213	1052	34	103	29	21	344	2	8	253	19	639	43	16	6	4	34	1	2821
여	51	461	6	5	14	3	40	1	4	16	1	50	13	4	3	4	1	0	677
미응답	1	7	1	2	0	2	1	0	0	2	0	5	0	8	0	0	1	0	30
총합계	265	1520	41	110	43	26	385	3	12	271	20	694	56	28	9	8	36	1	3528

<표8>은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비행 종류를 보여준다. 비행의 경우 강도와 절도, 성비행의 경우가 높으며 남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공갈/협박, 살인의 경우도 높게 나왔다. 여자인 경우 강도, 성비행, 절도의 비중이 높게 나왔다.

<표9>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비행명

성별	현재보호자									
	기타	보호자 없음	친부계모/친모계부	친부모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등)	편모	편부	형제 자매	미응답	총합계
남	70	47	372	1216	238	370	456	14	38	2821
여	12	4	90	251	72	124	107	7	10	677
미응답	0	1	2	8	2	5	5	0	7	30
총합계	82	52	464	1475	312	499	568	21	55	3528

Chi-Sq = 25.062, DF = 6, P-Value = 0.000

<표9>는 자유도 6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성별에 따른 비행 연령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친부모의 경우가 41.8%이고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59.2%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결손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10>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경제수준

성별	경제생활수준							미응답	총합계
	극빈 (기초생활 수급자)	하 (월 1백만 원 이하)	중하 (월 수입 1백만원 이상)	중간정도 (월 수입 2백만원 이상)	중상 (월 수입 3백만원 이상)	상 (월 수입 4백만원 이상)	최상 (월 수입 5백만원 이상)		
남	415	403	705	730	335	94	69	70	2821
여	109	116	164	179	63	11	9	26	677
미응답	4	1	6	8	2	0	1	8	30
총합계	528	520	875	917	400	105	79	104	3528

Chi-Sq = 15.437, DF = 6, P-Value = 0.017

<표10>는 자유도 6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17로 성별에 따른 비행 연령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생활 경제수준이 중간 이하의 가정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형편에 따른 비행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11>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여부

성별	학교생활만족여부					총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미응답	
남	105	841	1,444	362	69	2,821
여	32	257	331	45	12	677
미응답	1	8	10	4	0	23
총합계	138	1,106	1,785	411	81	3,521

Chi-Sq = 31.321, DF = 3, P-Value = 0.000

<표11>는 자유도 3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여부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학교생활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경우가 높았지만 많은 학생의 불만족 경우가 높게 나온다는 것에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는 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일부학생들에게 소외되는 학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12> 연령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여부

연령	학교생활 만족여부					총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미응답	
12세 이하	4	10	10	6	0	30
13세	12	61	87	24	1	185
14세	22	137	215	47	4	425
15세	24	240	383	77	14	738
16세	46	317	501	116	25	1,005
17세	14	204	383	96	19	716
18세	12	101	169	33	13	328
19세	3	29	25	8	4	69
미응답	1	7	12	4	1	25
총합계	138	1,106	1,785	411	81	3,521

Chi-Sq = 37.654, DF = 21, P-Value = 0.014

<표12>는 자유도 21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14로 연령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여부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하지만 <표12>와 같이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의 수치가 높게 나타남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13> 선생님 존경여부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여부

선생님 존경여부	학교생활 만족여부					총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미응답	
전혀 아님	59	30	13	2	0	104
아님	52	544	244	14	0	854
그려함	24	511	1,396	202	1	2,134
매우 그려함	3	20	128	193	0	344
미응답	0	1	4	0	80	85
총합계	138	1,106	1,785	411	81	3,521

Chi-Sq = 2031.321, DF = 9, P-Value = 0.000

<표13>는 자유도 9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선생님 존경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여부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비행청소년 또는 우

범소년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변화해야 함을 보여주며 교사가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표14> 학교생활 만족여부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희망 최종학력

학교생활 만족여부	희망 최종학력						
	중졸	고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미응답	총합계
매우 불만족	3	69	15	48	3	0	138
불만족	19	525	162	388	12	0	1,106
만족	17	600	257	883	26	2	1,785
매우 만족	2	91	47	257	14	0	411
미응답	0	7	3	3	0	68	81
총합계	41	1,292	484	1,579	55	70	3,521

Chi-Sq = 150.444, DF = 12, P-Value = 0.000

<표14>는 자유도 12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학교생활 만족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최종학력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만족의 경우 대학에 가려고 하는 비중이 높았고 불만족의 경우 고등학교로 학업을 마치려고 하지만 학교생활에 만족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소년원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현실성 있는 교육이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

<표15> 성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희망 최종학력

성별	희망 최종학력						
	중졸	고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미응답	총합계
남	32	979	351	1,354	45	60	2,821
여	9	304	129	215	10	10	677
미응답	0	9	4	10	0	0	23
총합계	41	1,292	484	1,579	55	70	3,521

Chi-Sq = 64.922, DF = 4, P-Value = 0.000

<표15>는 자유도 4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최종학력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남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

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의 경우 고졸의 학력으로 마치려는 경우가 많았다.

<표16>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희망 최종학력

선생님들과의 관계	희망 최종학력						
	중졸	고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미응답	총합계
매우 나쁨	3	47	10	30	2	0	92
나쁜 편	13	353	107	224	7	0	704
좋은 편	21	774	314	1,040	35	1	2,185
매우 좋음	3	111	50	281	11	0	456
미응답	1	7	3	4	0	69	84
총합계	41	1,292	484	1,579	55	70	3,521

Chi-Sq = 134.542, DF = 12, P-Value = 0.000

<표16>는 자유도 12의 카이제곱 검정 P값이 0.000으로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최종학력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미응답은 검정에 제외하였다).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나쁜 학생인 경우 고졸의 비중이 높았으며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은 학생의 경우 대학교 진학하려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17> 성별에 따른 소년원학교의 학적 연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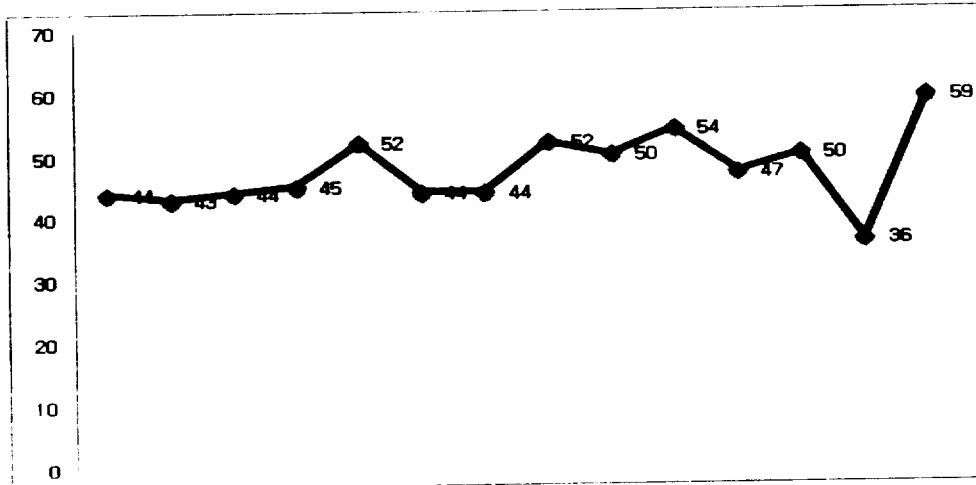
성별	데이터유형								
	전면입학 (중등)	전면입학 (고등)	진학 (고등)	진학 (대학)	검정고시 합격 (고입)	검정고시 합격 (고졸)	졸업 (중등)	졸업 (고등)	총합계
남자	94	26	68	35	92	96	79	4	494
여자	9	0	17	6	2	1	19	0	54
총합계	103	26	85	41	94	97	98	4	548

<표17>을 보면 중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루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다. 이는 소년원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검정고시 자격을 취득한 후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소년원학교가 학교와의 중간 교두보의 역할로 학생들의 제 학력 갖추기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 분석

1)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지능적 능력 분석

<표18> 2008년도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특수지능적성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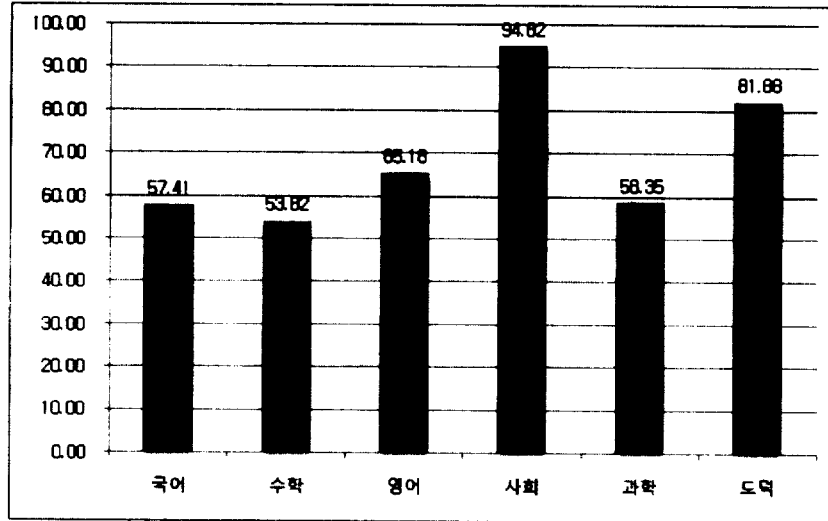
	어휘력	언어사용력	수리력	수추리력	나무도막세기	도형유추	논리적사고력	지각속도력	음악적성	운동적성	미술적성	컴퓨터적성	기술적성	대인관계적성
T점수	44	43	44	45	52	44	44	52	50	54	47	50	36	59

<표18>에 의하면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 중 수학의 추상적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인 수리력, 수추리력, 도형유추, 논리적사고력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수학의 직관적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인 나무도막세기와 지각속도력은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수와 물질의 특성에 대한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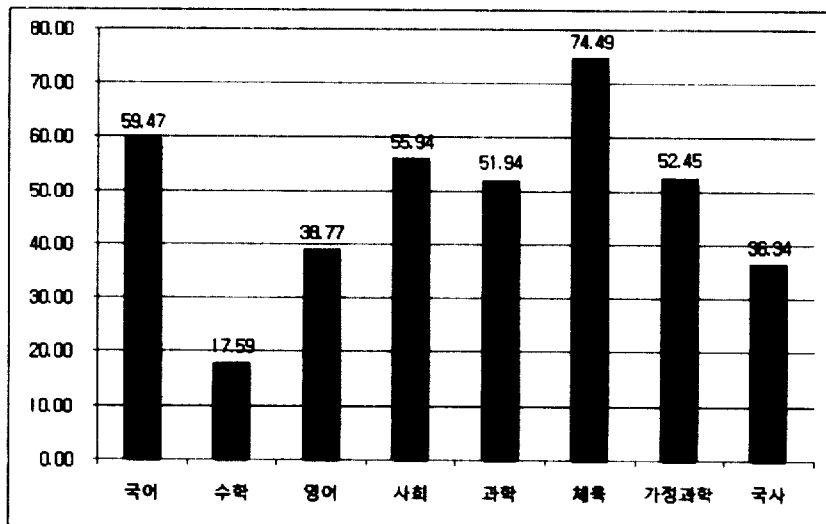
<표19> 2008학년도 소년원학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성적 평균 비교

- 춘천소년원(단기 9호 과정)



<표20> 2008학년도 소년원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평균 비교

- 춘천소년원(단기 9호 과정)



<표19>와 <표20>은 2008년도 제2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성적의 평균을 비교 한 것이다. <표19>와 <표20> 모두 수학의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17.59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이는 타 교과목에 비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18>, <표19>, <표20>을 통해 소년원학교에 입원하는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이 다른 과목 능력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학적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서는 먼저 살펴본 학교생활에 불만족,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소년원학교 학생 50명을 무작위로 뽑아 학생들에게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 설문과 기초적인 수학문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 설문은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성,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 수학학습에 대한 유용성, 수학의 성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수학에 대한 성취도 평가는 총 6문항으로 기초적인 유리수 계산 2문항과 중학교 1학년 방정식 문제 3문항,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기하문제 1문항을 50명 학생들에게 주어 시간제한 없이 문제를 풀게 하고 제출받았다.

<표21>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성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미응답
1	나는 수학적인 퀴즈문제를 좋아한다.	2 (4%)	11 (22%)	32 (64%)	5 (10%)	0 (0%)
2	수학은 나에게 즐거운 과목이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	1 (2%)	11 (22%)	35 (70%)	3 (6%)	0 (0%)
3	어떤 수학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풀 때까지 매달린다.	3 (6%)	17 (34%)	23 (46%)	7 (14%)	0 (0%)
4	일단 내가 수학퀴즈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나는 그것을 그만 두기가 어렵다.	1 (2%)	16 (32%)	26 (52%)	7 (14%)	0 (0%)
5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에 어떤 문제의 정답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 후에도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계속 생각한다.	0 (0%)	20 (40%)	25 (50%)	4 (8%)	1 (2%)
6	나는 즉시 이해할 수 없는 수학문제는 이해가 될 때까지 도전한다.	2 (4%)	14 (28%)	26 (52%)	8 (16%)	0 (0%)
7	수학문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4 (8%)	11 (22%)	34 (68%)	1 (2%)	0 (0%)
8	수학 퀴즈 문제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7 (14%)	15 (30%)	27 (54%)	1 (2%)	0 (0%)
9	나는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 (4%)	18 (36%)	25 (50%)	5 (10%)	0 (0%)
10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3 (6%)	22 (44%)	24 (48%)	0 (0%)	1 (2%)
11	나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해답을 구하여 나에게 주기를 바란다.	3 (6%)	25 (50%)	22 (44%)	0 (0%)	0 (0%)
12	수학에 대한 도전 자체가 나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4 (8%)	13 (26%)	29 (58%)	4 (8%)	0 (0%)
13	나는 가능하면 수학공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6 (12%)	10 (20%)	29 (58%)	5 (10%)	0 (0%)

<표21>은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학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2의 “수학은 나에게 즐거운 과목이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이 76%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대해 즐겁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문항6의 “나는 즉시 이해할 수 없는 수학문제는 이해가 될 때까지 도전한다.”의 경우 70%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문항 8의 “수학 퀴즈 문제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56%, 문항 12의 “수학에 대한 도전 자체가 나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6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수학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 수학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동기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22>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

번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미응답
14	나는 수학공부에 자신이 있다(즐겁다).	2 (4%)	10 (20%)	31 (62%)	7 (14%)	0 (0%)
15	나는 교과서의 수학문제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0 (0%)	10 (20%)	34 (68%)	6 (12%)	0 (0%)
16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수학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 (0%)	7 (14%)	36 (72%)	7 (14%)	0 (0%)
17	나는 앞으로 수학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4%)	17 (34%)	23 (46%)	8 (16%)	0 (0%)
18	나는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 (0%)	9 (18%)	32 (64%)	9 (18%)	0 (0%)
19	나는 수학을 접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1 (2%)	7 (14%)	33 (66%)	9 (18%)	0 (0%)
20	나는 수학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9 (18%)	19 (38%)	18 (36%)	4 (8%)	0 (0%)
21	나는 어려운 수학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5 (10%)	22 (44%)	21 (42%)	2 (4%)	0 (0%)
22	나는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0 (0%)	17 (34%)	28 (56%)	5 (10%)	0 (0%)
23	나는 수학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항상 어렵게 생각 된다.	8 (16%)	30 (60%)	11 (22%)	1 (2%)	0 (0%)
24	나는 대부분의 과목들을 잘 처리할 수 있지만, 수학은 항상 실수를 하는 편이다.	6 (12%)	30 (60%)	14 (28%)	0 (0%)	0 (0%)
25	나는 수학과목을 가장 싫어한다.	11 (22%)	9 (18%)	26 (52%)	4 (8%)	0 (0%)

<표22>는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이다. 각 항목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학습에 대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 결여는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성이 부정적이라는 면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3> 수학학습에 대한 유용성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미응답
26	나는 장래의 직업 때문에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12%)	22 (44%)	18 (36%)	4 (8%)	0 (0%)
27	나는 수학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수학공부를 한다.	1 (2%)	19 (38%)	27 (54%)	3 (6%)	0 (0%)
28	나는 수학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벌어들인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0 (0%)	21 (42%)	24 (48%)	5 (10%)	0 (0%)
29	수학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에게 필요한 과목이다.	1 (2%)	30 (60%)	17 (34%)	2 (4%)	0 (0%)
30	나의 장래직업을 위하여 수학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6%)	26 (52%)	18 (36%)	3 (6%)	0 (0%)
31	나는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은 면에서 수학 지식을 이용할 것이다.	1 (2%)	22 (44%)	24 (48%)	3 (6%)	0 (0%)
32	수학은 나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6%)	17 (34%)	24 (48%)	5 (10%)	1 (2%)
33	수학은 나의 장래 생활에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8%)	16 (32%)	27 (54%)	3 (6%)	0 (0%)
34	수학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의 일상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을 과목이라 생각한다.	3 (6%)	17 (34%)	26 (52%)	3 (6%)	1 (2%)
35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 생각한다.	2 (4%)	9 (18%)	32 (64%)	7 (14%)	0 (0%)
36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것은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생활에 중요하지 않다.	3 (6%)	15 (30%)	26 (52%)	6 (12%)	0 (0%)
37	내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한다.	3 (6%)	16 (32%)	24 (48%)	7 (14%)	0 (0%)

<표23>는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각 항목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학습이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수학의 실용성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수학교육의 목적인 수학의 실용성을 교사들이 가르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서 수학의 실용성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을 시사한다.

<표24> 수학의 성공에 대한 태도

번호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미응답
38	나는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8 (16%)	13 (26%)	26 (52%)	3 (6%)	0 (0%)
39	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우러러 보이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9 (18%)	21 (42%)	16 (32%)	4 (8%)	0 (0%)
40	나는 수학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행복할 것이다.	11 (22%)	27 (54%)	12 (24%)	0 (0%)	0 (0%)
41	나는 수학과목에서 상을 탄다면 정말로 흐뭇할 것이다.	11 (22%)	25 (50%)	13 (26%)	1 (2%)	0 (0%)
42	수학시험에서 1등하는 것이 무엇보다 감격스러울 것이다.	11 (22%)	23 (46%)	14 (28%)	2 (4%)	0 (0%)
43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은 흐뭇한 일이다.	13 (26%)	21 (42%)	14 (28%)	2 (4%)	0 (0%)
44	나는 수학성적이 우수하여 상을 타는 일은 잘난 체 하는 기분을 갖게 하여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 (6%)	19 (38%)	22 (44%)	5 (10%)	1 (2%)
45	만약 수학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내고 아주 힘들여 공부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10 (20%)	23 (46%)	17 (34%)	0 (0%)	0 (0%)
46	만약 수학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나는 그것을 숨기려고 할 것이다.	2 (4%)	10 (20%)	31 (62%)	6 (12%)	1 (2%)
47	만약 나의 수학성적이 가장 뛰어나면,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모르기를 바랄 것이다.	3 (6%)	11 (22%)	25 (50%)	11 (22%)	0 (0%)
48	만약 내가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될 동기가 될 것이다.	4 (8%)	5 (10%)	29 (58%)	12 (24%)	0 (0%)
49	나는 수학의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0 (0%)	13 (26%)	24 (48%)	13 (26%)	0 (0%)
50	수학을 공부하는 것 보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더 쉽다	10 (20%)	19 (38%)	19 (38%)	2 (4%)	0 (0%)

<표24>은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의 성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문항 39의 “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우러러 보이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60%, 문항 40의 “나는 수학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행복할 것이다.” 76% 등,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고 싶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를 보여주며 소년원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수학과 지도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소년원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다. 비록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학업을 언젠가는 이어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소년보호교육기관이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학교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행청소년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쁠수록 학업에 흥미를 잃고 있었다. 교육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중 한 가지가 빠지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학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가 호전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교과목의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수학과목의 지도방안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수학한 가지 과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과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현실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2. 제언

소년원학교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동향은 대체로 비행과 관련한 재범률을 측정하거나 비행청소년 성행개선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소년원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교육공학, 개별 학생의 학습 성향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 바라본 바와 같이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망은 많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소년원학교 학생에 대한 수학과 지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전문화이다.

소년원 특성화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된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고, 개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개별화 전문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실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 공교육과정에서는 운영하기 곤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 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사이버교육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별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한 개별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되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화와 전문성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개별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일반학교와 소년원학교간의 인적자원 교류 강화이다.

소년원이 특성화학교 체제로 정착되면서 과목수업과 검정고시 교육에서 교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특수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교원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의 정책 연계, 정보교류, 교사 및 교재의 공동 활용 등 주요정책의 원활한 조정이 미흡하여 그러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년원학교와 일반학교의 인적자원을 상시 교류하고,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산망과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 상호연계 구축 등 협력 사업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년원 교사의 비행청소년 교육선도경험과 노하우를 일반 학교의 문제 학생,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상담 등 임상적 경험을 쌓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호교사로서의 자질함양과 함께 소년원학교의 교과목 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년원학교에 입원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소년원 학교에 입원하지 않고 일반청소년들과의 비교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성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을 심도 있게 알아보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년원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와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비행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 김선외 5인, 학습부진아의 이해와 교육, 학지사, 2006
- 김윤영, 수학과 발문수업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 문제해결에 따른 발문의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논문, 2007
- 김향숙외 7인, 수학에서의 Flash 활용, 경문사, 2005
- 김향숙외 5인, 수학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발문의 실제, 경문사, 2007
- 박용범 외 2인, 수학 개념의 자기 주도적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 박혜향, 박혜향과 함께하는 수학교육론이야기, 2005
- 백란·김진만, 수학교육 신장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호남대 학술논문집 제23집
- 법무부, 특수지능적성검사, 2007
- 윤석훈, 수학교육에서의 컴퓨터 활용, 명지대학교 석사 논문, 2000
- 이소현외 1인,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2006
-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2006
- 정해룡, “21세기 소년보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전략 - 보호 14호”, 법무부, 2002.10, pp. 48-49.
- 최진옥, 문장제 문제를 중심으로 Polya의 문제해결단계 중 발문학습이 수학적 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 논문, 2007